

PVC 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합시다 !!!

- 관련법규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생활계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재질은 종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중 PVC 재질은 재활비용이 타 재질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표1 참조) 재활용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에 PVC 재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관련법규의 내용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용기 · 포장재의 PVC재질 사용을 자제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조사 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1. 계란, 메추리알
2.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 합성수지제품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표1)

구 분	재활용기준비용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폴리아크릴릭,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등 단일재질의 포장재	327원 / kg
합성수지 복합재질포장재(PVC 복합재질 제외)	467원 / kg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981원 / kg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 포장재	178원 / kg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317원 / kg

정부소식

‘환경교육 이동차량’ 운행한다

환경부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환경의식 고취 등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교육 이동차량을 제작, 우선 수도권지역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차량 이용 환경교육은 환경 실험, 실습, 환경보전 영상물 시청, 환경홍보 판넬 관람 등 체험교육 위주로 구성되며 각종 환경관련 자료, 홍보물도 나눠준다.

8t 트럭을 구입, 개조해 사용할 이동차량은 방문교육의 특성과 실내공간 활용도 등을 고려, 컨테이너를 탑재하고 그 안에 빔 프로젝트 · VCR · 전동 스크린 · PC 검색대, 탁 · 의자 등 교육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차량을 구입, 개조하는 한편 강사채용 등 교육준비를 끝내는대로 내년 1,2월 시범운행을 거쳐 신학기인 3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은 주 4~5회, 월 20회 내외, 1회 교육인원은 35명 가량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교육 이동차량 운영 성과를 평가, 중 · 고등학생, 주부, 군인 등 교육대상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